

화순교육청, 여름방학 중 학습·진로 멘토링 진행

초등학교 4개교·중학교 3개교 학생 25명

광주 교대생 9명 예비교사 멘토링 운영

화순교육지원청은 최근 '광주교육대학교 예비교사 대학생 멘토링'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화순 지역 초·중학생을 멘토로 하고 멘토당 1~4명 단위 그룹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 진로·고민 상담 및 생활 조언 등의 멘토링을 하는 것이다. 멘토는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대

상으로 학교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멘토는 광주교육대학교 2~3학년 학생 중 학습지도 관련 연수를 수료한 대학생 9명을 광주교대에서 선정했다.

9개 그룹으로 일일 3~4시간, 4~10일, 총 15~40시간까지 운영되며, 멘티 학생의 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화순교육지원청은 광주교육대학교와 연계하여 학기 중에는 초등학교

교 협력강사제를 기 운영해 수업 중 학습결손 최소화해 힘쓰고, 방학 중 지속 지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 학습심리상담사와 학습코칭단 상담 및 학습코칭, 학습코칭 강사 개별 학습지도 등 학력 향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한 중학교 학생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언니, 오빠 같은 대학생이 교과 학습을 보충해 주고 친구 관계, 진로 조언 등 상담을 해 주셔서 소통도 잘 되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현희 화순교육장은 "광주교육대학교와 연계한 예비교사 협력강사제에 이어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



영하며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생 멘토링은 멘티, 멘토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며 함

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최순=박순철기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교사 직무연수’ 실시

초등교사 역량강화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27~29일 서울 동안 소강당에서 '2021년 초등교사 진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27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높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는 27일 ▲진로교육의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진로역량, 28일 ▲그림검사를 활용한 진로상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진로검사 이해와 활용 방안 29일 ▲도자기 제작 방법의 이해 등 6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연수의 실효성을 위해 체험, 사례,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27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진로역량' 과목의 연수 강사로 '잡스퍼 코리아' 권기원 대표를 초청했다. 권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 교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교육현장 속 활용 가능한 기법과 지원에 대해 살펴봤다.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미래 및 진로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연수로 학생 진로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진로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남은 강의도 학생 진로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이미래 원장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스스로를 브랜드화 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강의가 학생들의 행복한 진로 선택에 유익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멘토의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기동취재본부

담양교육청, 부모-자녀 함께 가는 멋진 세상



담양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23일 담양군 용면에 위치한 '먹감촌' 체험장에서 '부모-자녀 함께 가는 멋진 세상'이라는 주제로 1일 가족 캠프를 실시하

담양Wee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가족 캠프

였다. 가족 캠프는 초4-6학년 부모-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9가족 18명이 참석하여 자녀와 함께 '머핀 만들기', '동화책 읽어주기' 우리 가족에 대해 서로 알아보는 '우리 가족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족 캠프에 참석한 수북초 한 학부모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

늘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훌쩍 커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한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철주 교육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아이들의 심리적 불편감이 높아가는 요즘 가족 캠프에 참가한 것만으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기쁨일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전남국제교육원, '중등 1급 정교사 영어 자격연수 시작'

정교사 영어 자격연수 시작



전남국제교육원은 지난 26일 3층 대강당에서 도내 중등영어교사 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중등 1급 정교사 영어 자격연수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7월 26일(월)부터 8월 6일(금)일까지 10일 동안 대면 집합 연수로 진행된다.

2021년 중등 1급 정교사 영어 자격연수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전남 중·고등학교 중등 2급 영어 정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수생들이 이번 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 1급 영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 연수에는 정규교사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포함되어 더욱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영어 자격연수는 이수 시간 98시간 중 28시간은 원격 연수로 편성하고, 나머지 70시간은 대면 집합 연수로 편성하여 진행된

중등영어교사 50명 대상

다.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기본역량 영역 37시간과 전문역량 영역 6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전남교육의 이해 및 실천 등의 교과목은 토의·토론형, 성취형·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교과목은 원격연수형, Micro-teaching 등의 교과목은 워크숍형,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수업 방법 등 전공 연수 교과목은 실습형으로 편성하여 교육과정 성격에 따라 다양한 교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고 심도 있는 토의·토론 중심의 강의는 물론, 현장 경험이 많은 전국의 현직 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이론과 현장을 접목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번 자격연수를 구성함으로써 학생중심수업 역량 제고와 학생·학부모와 소통하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중심의 연수로 진행된다.

전남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자격연수에 참여한 중등 영어교사들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기동취재본부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원어민화상콜센터 우수학생 선정

방과 후 수업 우수학생 25명 선정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지난 23일 원어민화상콜센터에서 실시한 2021학년도 1학기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학생 25명을 선정해 상장 및 상품을 전달했다.

26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1학기 방과 후 수업은 18주에 걸쳐 원격 화상영어 수업으로 운영

됐고, 초등 3-6학년 총 160명이 참여했다.

원어민 교사 1명과 학생 4명이 한 조를 이뤄 주 2회 각 20분 동안 수준별 그룹으로 진행됐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1학기 방과 후 수업 운영 기간 동안 성실한 수업 태도와 우수한 영어 실력을 보

여준 학생 5명과 2회에 걸친 영어능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인 학생 20명을 선정해 각각 우수상과 향상상을 상품과 함께 전달했다. 원어민화상콜센터는 우수학생 선정 이외에도 원어민 교사가 담당한 전체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식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기동취재본부

